

마음을 업그레이드하자면

권진량

안동시와룡면서지리



우리는 10년전 IMF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가 더욱 각박하고 짜증스럽게 변했다. 누구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의 하나라고도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서로 믿고 생활하기보다는 못믿는 불신과 의심이 깊어지고 그런 터전에서 마음의 평화는 것들거나 찾아지지 않고 있다. 옛 선현들도 그래서인지 심법心法을 높이 세워 실천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 심법은 내 스스로에게,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이 마음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자전에서 찾아봄 마음의 뜻

사전에서는 마음이 사람의 이성·감정·의지 등 정신활동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 정의했다. 또는 품고 있는 생각이나 뜻, 타고난 심정이나 또는 성정, 느끼는 생각 또는 기분·사물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무슨 일을 하려는 뜻, 무슨 일에 대한 관심, 잊지 않고 있는 심정 등이라고도 풀이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주재主宰로서神明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안으로 칠정七情을 주관하고 밖으로 모든 사물에 대응하는 기관이다.

마음에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이 있다. 이는 성리학性理學의 대단히 큰 명제이거니와 사단은 네 가지 마음씨로서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네 길로 나가는 실마리가 되는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의 마음이다. 칠정은 사람에게 있는 일곱 가지 감정으로서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 또는 희노우사비경공喜怒哀憂思悲驚恐의 감정을 이른다.

마음을 뜻하는 한자 심心의 자훈字訓을 보면 주어오신主於吾身 통호성정統乎性情 시지위심是之謂心이라 했다. 나의 몸을 주재하고 성품과 정서를 통할하니 이를 일러 마음이라 한다는 뜻이다.

■마음에 대한 격언들

순舜임금은 인정심불미人情甚不美, 즉 사람의 성정은 매우 좋지 않다 하였다. 그리스의 유물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행복과 불행은 마음속에 함께 있는 것이라 했다. 공자는 범인심험어산천凡人人心險於山川

난어지천難於知天 : 무릇 사람의 마음은 산천보다 험하고 하늘보다 알기 어렵다 하였다. 석가모니는 자비심慈悲心 :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했으며 예수는 애린인愛隣人 : 이웃을 네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맹자孟子는 인인심야仁人心也 의인로야義人路也 : 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로운 것은 사람의 길이라 하였다. 성악설性惡說의 순자荀子是 사람의 본성은 악한데 그것이 선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 때문이라 하였다. 장자莊子是 마음보다 잔인한 무기는 없다 하였고 원효元曉는 세상 모든 것은 다 마음가짐 탓이라 하였다. 달마達磨는 마음, 마음아, 알 수 없구나 하고 탄식하였고 노자老子는 생이불유生而不有 위이불시爲而不恃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 : 나거든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해놓은 바에 기대지 말며 성공하거든 머물지 말라 하였다.

지눌知訥은 마음을 닦는 자는 스스로 비굴하지 않고 뽐내지 않는다 하였고 정여창鄭汝昌은 마음은 있는 곳이 없고 없는 곳도 없다 하였다. 이황李滉은 감동하여 환히 꿔뚫음이 마음의 작용이고 일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으니 그 일을 마음에 두면 병이 된다 하였다. 이이李珣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진심이고 참된 마음은 거짓이 없고 순수한 것이라 하였다.

영국의 버어튼은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이들은 다 인간 의지의 변덕이라 했고, 베이컨은 세상에는 악을 위해 악행을 하는 자는 없고 모두 악에 의해 이익과 쾌락을 얻고자 악을 저지른다 하였다. 프랑스의 여류 보바르는 선을 행하는 데는 하나의 길밖에 없으니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했고 실락원의 밀턴은 마음이 천국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하였다. 에머슨은 마음이 맑은 사람은 온세계가 깨끗이 보이고 마음이 잡된 사람은 온세계가 더럽게 보인다 했으며, 독일의 실러는 너의 운명의 별은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다. 괴테는 마음이 통일되면 행동은 절로 통일된다 하였고 링컨은 사람이 행복하기로 마음먹은만큼 행복해진다 했다.

양촌陽村은 입학도설入學圖說에서 심자인소득초현이주호

신心者人所得乎天而主乎身 : 마음은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것인데 이가 몸을 주관한다 하였고 ‘대학大學’에서는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채근담菜根譚’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하늘처럼 수시로 변한다 하였다.

■마음을 다스림
고려말에 승려 무학無學이

독자투고

우리나라 성씨

권영한
경기연천군백학면

천성만본千姓萬本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만도 술해 많은 성씨가 살고 있다. 티벳나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해 전자에 듣지 못하던 생소한 성씨가 자주 생겨나고도 있다.

이조 중엽 영조 때의 학자 이의현李宜顯이 밝힌 바에 의하면 당시 298개의 성씨가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2세기 후인 1908년, 구한국 시대에 와서는 그 수가 거의 배에 가까운 496개로 늘었음을 ‘증보문헌비고’는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후로 또 80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그 사이 외래 성씨도 많이 늘었으므로 어렵잡아 현재에는 약 600여성씨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을 것 같다.

지금 세상은 만민평등의 사회가 되어 귀성貴姓도 누성陋姓도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옛 고려와 조선 왕조 시대에는 성의 성인 국성國姓이 있고 성 위에 성이 있으며 성 밑에 또 성이 있어 그 구분에 따라 사람의 신분과 대우도 달랐다. 이렇게 ‘양반·상놈’을 가리던 귀중한 성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대략 천년 전의 일로서 신라말 고려초였다고 한다. 그 전 세상 통일신라와 삼국·삼한 시대에는 중국과 왕래하면서 극소수의 왕족 및 귀공족이나 성을 썼고 서민대중은 성이라는 것이 없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개성왕씨開城王氏의 고려가 개국하면서 나

어느날 시종侍中 이성계李成桂를 찾았다. 이시종이 농담으로 ‘대사가 돼지같이 생겼구려’ 하고 말하자 무학은 이를 받아 ‘대감은 부처님 같이 보입니다’ 하였다. 이시종이 의아하여 ‘나는 대사를 돼지같다 했는데 어찌 나를 부처에 비하시오’ 하니 무학이 ‘돼지같은 사람에게는 돼지로만 보이고 부처같은 사람에게는 부처만 보인답니다’ 하였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악마와 천사가 이웃하고 있다 한다. 그러니 이들 중에 어느 것을 꺼내 쓰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상대가 미소하면 이쪽에서 화를 내기 어려우며 상대가 화를 내면 이를 골리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말보다 감정이 먼저인 것이다.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한다. ‘경행록景行錄’에서는 한때의 분한 감정을 참고 견디면 수백일의 근심을 모면하리 하고 하였다. ‘소학小學’에서는 종선여등從善如登 종악여붕從惡如崩 : 선을 좇음은 산을 오름과 같고 악을 좇음은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하였다.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힘쓰며 오직 선만을 도모하는 것이 정사正思라 하였다. 마음을 업그레이드하는 여섯 가지 요체는 첫째, 기미를 잘 알아서 좋은 방향을 잡는 지기知機, 둘째, 스스로 마음을 속이지 않는 막기심莫欺心, 셋째, 시샘을 내거나 투기하지 않는 막질투莫嫉妬, 넷째, 함부로 성내지 않는 계노戒怒, 다섯째, 기꺼이 물러설 줄 아는 염퇴恬退, 여섯째, 몰래 남을 숨어서 돕는 음즐陰이라 한다.

시조는 고려 태조로부터 병기달권炳幾達權의 권씨성을 하사받아 안동권씨가 창시된 바였다.

안동권씨의 탄생은 이러한 유래를 지녔거니와 우리 시조 태사공의 후예인 우리 권성인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마음과 품행으로 오래도록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양반집안’이라는 자타의 공인을 받아왔다. 이러한 우리 권씨는 또한 족보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연찬하여 조선 성종 7년, 1476년에 동방 최초의 족보 성화보成化譜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우리 권씨의 큰 자랑의 하나이다.

혹자가 우리 권씨의 성화보보다 문화유씨의 가정보嘉靖譜가 먼저라고 우기기도 한다. 문화유씨의 가정보가 나온 연대가 1522년에서 1566년 사이이니 우리 성화보보다 무려 80년 정도나 늦은 것이다. 그리고 유씨의 가정보가 그 서문 뿐이지 그 본책이 발간·보존된 상태도 아니니 입증도 아니되고 있는 것이다.

일설에는 고려 태조가 성을 하사할 때 우리 시조 태사공에게 가장 좋은 권權자 성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렇게 좋은 글자로 사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성씨에 말이나 물고기 또는 코끼리 등을 상징하는 글자로 성을 내렸는데 이는 당시에 그렇게 고상하게 사성하지 않은 뜻이 있다고도 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 권씨가 좋은 성을 받아서인지 오래도록 많은 인물과 명현달사名賢達士가 배출되면서 비교적 좋은 인재가 많고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남에게 폐가 되지 않으며 구차한 짓을 덜하고 정직과 양심을 지키며 대쪽같이 살고자 하는 기질이 있는 것이다.